광주시, 인공지능 전문인력 305명 배출

AI사관학교 제5기 성과발표·수료식…52명 조기 취업

산업현장 교육생 맞춤 실무인재 5년간 1천221명 양성

광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중심 '인공지능(AI) 사관학교'가 지난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인공지능(AI) 전문인력 305명을 배출했다.

2020년 첫 모집 이후 5년 간 탄탄한 AI 교육 과정을 통해 올해 5기까지 총 1천22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 AI 사관학교는 1-4기 졸업생 68%가 취·창업에 성공했고 5기는 52명이 조기 취업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학습과 기업 실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NVIDIA)의 딥러닝 프로그램(DLI)을 제공하고 한국IBM, ㈜데이타솔루션 등의 기업과 협력해 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디지털본부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AI 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관학교 성과 보고, 교육생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강,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엘리스그룹, 대신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등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열려 수료생들에게 구인 정보 제공, 현장 면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4명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CT 전시회인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관 기회를 얻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2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5기 성과공유회 및 수료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교육생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기 사관학교는 산업현장과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해 총 1천300여시간에 걸친 AI 교육 및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교육 과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 내외 30여개 AI 기업과 협력해 60건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육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끌어 올렸다.

이 밖에도 모의면접, 선후배 네트워킹 행사인 '커넥팅 데이', 교육생과 AI 기업간 간담회인 '기업 브릿지데이' 등 교육생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연이어 광주를 찾아 협약을 맺었다"며 "이는 광주의 또 다른 기회이자 그동안 추진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의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여러분이 성과의 주역인 만큼 앞으로도 AI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1단계 3.2GW 조성 잰걸음

道, 민관협의회 개최…내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 목표

전남도가 제4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민관협의회를 지난 25일 도청에서 열어 2025년 상반기까지 1단계 3.2GW 규모 지정을 실현 한다는 목표로 사업 계획 등에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송전선로 관련 예정 경과지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 변경안과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에는 송전선로 예정 경과 지역 주민 대표와 부단체장이 포함돼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이후 산업부와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반영,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2개 단지를 제외해 1단계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됐다.

또한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주민대표 위원 등은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주민이 납득할 이익 공유, 지원 등 상생 방안을 빠른 시일내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주민이 포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1단계 3.2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 계획을 연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집적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양만권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박차

道,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전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 GS칼텍스·포스코·한양 등 산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3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용역 결과, 광양만권을 수소배관망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했다. 이는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탄소중립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남도는 이달 4일 광양에서 국내·외 수소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전남도, 여수·순천·광양시, 여수산단기업체와 남동·동서·서부발전 3개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양만권 청정수소 배관망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6개 협약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광양만권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및 탄소 포집·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도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석유화학산단 전체 8.7% 중 4%를 차지하는 광양만권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다"며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청정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전국 최초 청정수소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보건환경硏,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역 유통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다소비 품목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과 식품첨가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통보해 압류·폐기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지난해 검사에선 자연수산물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마른김에서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양시원 기자

광주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개최

오늘부터 29일까지 시청 시민홀

광주시는 26일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상담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를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소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우선구매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는 더좋은커피협동조합, ㈜처음한과, ㈜바른핑거스 등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개 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포토존, 플레이존, 전시존, 체험존 등에서 제품 전시와 체험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제품을 시음·시식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퀴즈와 룰렛이벤트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수희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케이엘홀딩스(이하 "피합병회사")은 2024년 11월 26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스엠상선 주식회사 (이하 "합병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아래 기재된 당사주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도 위 기간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주식회사 케이엘홀딩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5층(금남로2가,무등빌딩)
대표이사 최 승 석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광주매일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21세기 뉴미디어를 선도하는 광주매일신문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 꿈이 큰 가족을 찾습니다. 창간 33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매일신문은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종이신문과 TV를 융복합해 지방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진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 분야

구 분	근무예정지	인 원	자 격 사 항
편집국 취재기자	본사 (광주)	0명	- 남자의 경우 군필 및 군면제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당사 인사규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보
2차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최종통보 - 개별통보
■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부착, 연락처 명기) 1부
나. 자기소개서(세부 실무 경력사항 중심 작성, A4 2매 분량)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 서류 접수
가. 접수기한 : 2024년 11월 27일(수) ~ 채용시까지
나. 접수방법 : 본사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광주매일신문 경영지원국 인사담당자
라. 문의전화 : 062)650-2011, 2012
■ 기타 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다. 이력서 상단 우측에 모집분야 명기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본인이 요청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http://www.kjdaily.co.kr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